

보도시점

2025. 6. 11.(수) 15:30

배포

2025. 6. 11.(수) 15:00

농식품부, 라면 수출기업 생산공장 준공식에서 수출 확대 노력 격려 및 현장 애로사항 청취

- ‘25.5월 기준(잠정) 라면 수출액은 605백만불으로 전년 대비 24.5% 증가
- 케이(K)-라면 수출확대에 삼양식품 ‘밀양 제2공장’의 큰 역할 기대

농림축산식품부(이하 농식품부) 강형석 농업혁신정책실장은 6월 11일(수), 삼양식품 ‘밀양 제2공장’ 준공식에 참석하여 삼양식품의 케이푸드(K-Food) 수출 확대를 위한 노력에 대하여 격려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.

※ 삼양식품 ‘밀양 제2공장’ 준공식 개요

- (일시/장소) ‘25.6.11(수) 14:00~15:00 / 경상남도 밀양시
- (참석) 약 200명(농식품부 강형석 농업혁신정책실장,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, 김동찬 삼양식품 대표이사, 김명주 경상남도 경제부지사, 안병구 밀양시 시장 등)

‘25.5월 기준(잠정) 라면 수출액은 전년 동기 486백만불 대비 24.5% 증가한 605백만불로 지난해의 상승세를 올해도 이어가고 있다. 삼양식품의 ‘밀양 제2공장’ 준공은 금년도 케이(K)-라면 수출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
농식품부 강형석 실장은 준공식 축사에서 “삼양식품은 라면, 소스 등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여 케이푸드(K-Food) 수출 선도기업으로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으며, ‘밀양 제2공장’이 삼양식품의 글로벌 도약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.”라고 하면서, “삼양식품과 같은 수출기업들이 글로벌 식품시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로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
붙임 준공식 현장 사진

담당 부서	식품산업정책관실 농식품수출진흥과	책임자	과 장	강효주 (044-201-2171)
		담당자	사무관	김남주 (044-201-2174)